사 설

'화장 유언남기기'

최근 타계한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이 자신을 화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값싸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증토록 하는 유언을 남겨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주은래나 모택동 등의 화장이 중국인민에게 던져 주었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최회장의 화장을 계기로 서울시는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와 함께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화장장려 범시민운동을 펼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다.

얼마전에 폭우로 수해를 입었을 때 많은 무덤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변을 우리는 당했다. 누구의 유골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바로 매장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매장으로 인한 폐해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발표가 있었고, 현실로 입증된 바이다.

이미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우리국토의 택지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토의 1%, 서울면적의 1.6배이다.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은 94년도 기준으로 약 13평,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인 4.3평보다 무려 3배가 더 크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생활공간이 점점 묘지에 밀려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묘지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이 현대사회구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성철스님이 입적하였을 때 그 다비식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불길속에 태워 버리고 무애의 경지에 다다르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화장이라는 장례문화를 일깨워 준 부처님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묘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 일본, 대만등은 이미 20세기에 들어서서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변혁을 이루어 왔다. 매장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묘문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을 알고 이에 조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가진 정부나 종교계가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불교신도가 가장 많은 일본은 사찰에서 납골당과 같은 사원묘지를 대중화시켰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매장을 금지시킴으로써 화장문화를 정착시켰다.

화장은 인간과 환경친화적이어서 21세기 대안사회를 이끌어 가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는 국가의 법제도 이전에 관습과 의식개혁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이 앞장설 때 빨리 정착될 수 있다.

이번 최회장의 용기있고 올바른 용단이 화장문화를 확산시키는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물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의 장묘문화인 화장을 실천하는데 보살이 돼야 한다.

불교가 제시하는 화장의 의미는 단순한 장례의식이 아니라 심오한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수행·학덕 불교도의 귀감

3일 원적 보성스님 행장 동국대 총장 역임…불교학 기초 다져

3일 좌탈입망한 보성스님은 일제치하와 6·25 동란, 불교분규 등 순탄치 않은 근현대사를 지고한 수행력과 학덕으로 지켜온 불교계의 큰 별이었다.

1906년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한 스님은 열세살의 어린 나이로 강원도 건봉사 김보련 스님의 문하에서 체발(剃髮)하고 불문(佛門)에 들어 1933년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보성스님은 출가 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가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 길로 스님은 동경 목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동경 일본대학 종교과 전문부와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길을 다졌다. 현해탄을 넘나들며 쌓은 스님의 학덕은 동국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교수직을 맡으며 후학들에게 돈후하게 전해졌다. 1961년부터는 동국대학의 총장을 역임 불교학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학승이면서 수행자의 본분사를 잃지 않았던 스님은 1923년 건봉사에서 수선안거를 시작한 이래 20안거를 성만하는 등 선교겸수의 모범을 보기이도 했다.

스님은 지난 7월15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살아생전 8.15 해방을 맞았던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만큼 주권 없던 그 시절이 가슴에 사무쳤던 것이다. <본지 182호 수행한담>

그러나 스님은 해방의 기쁨만큼이나 큰 회한도 온 몸으로 떠안아야 했다. 불교분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해방이후 계속된 불교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님은 태고종을 일으켜 세웠다. 태고종 원로스님들은 "보성스님이 한국불교의 법통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태고종단의 기둥이자 거목으로서 한시도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이승 인연을 다하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공심과 화합심만이 한국불교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며 '종단화합과 불교발전'을 당부한 스님의 '덕화'는 이제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으로 피어나는 한송이 연꽃으로 남아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3일 원적에 든 보성스님은 지고한 수행력과 학덕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지켜온 큰 별이었다. 사진은 96년 봄 영종도 용궁사에서 산책 중인 스님의 모습.

아시아 불교평화회의

월탄스님등 참석

◇월탄스님

사회주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불교평화회의(의장 초이 잠스토 CHOI JAMSTO)가 8~12일 몽골리아 울란바토 강단사원에서 열린다.

'정신계발로 세계평화 이룩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한국불교계로서는 처음으로 월탄스님(아시아불교평화회의 한국본부장)이 참석해 개회식에서 평화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법기스님(명련사 주지), 이승희(국제불교여성협의회 회장) 등 불교인사 6명도 동행한다.

1994년 아시아불교평화회의에 가입한 한국본부는 17개국 3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평화유지에 한국불교도 동참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조선불교도연맹과 만나 금강산에서의 '남북평화통일기원법회' 봉행을 논의하며 달라이라마도 참석, 법어를 한다.

아시아불교평화회의는 1960년 발발한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불교국의 경제위기와 평화질서 파괴를 우려해 1970년 인도, 네팔, 소련과 북한 등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결성된 기구다.

도필선 기자

중신회 12월쯤 회장선출 대의원총회

'당분간 두 직대체제 지속'

홍옥진 김한곤 부회장 등 두 명의 회장직무대행체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옥진 직무대행이 소집해 4일 열린 중앙신도회 회장단회의에서 새 회장을 선출키 위한 대의원총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회장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장단은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리면 자칫 중앙신도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총회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신도회 정상화대책위 구성도 유보키로 하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명의 회장단중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불자연합회 불교언론인회 등과 교섭해 직능단체 임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해 회장단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김한곤 직무대행과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포교원이 총무원의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소는 http://www.buddhism.or.kr/pogyo.

포교원 홈페이지는 포교원 소개를 비롯 불교와 사회, 주제별로 법문자료를 제공하는 '주제설법', 자료실, 상담실, 영문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정성운 기자

"2002년 월드컵 식전행사 팔관회 전통 재현하자"

이윤택씨 '차별화된 문화축제' 주장

2일 잠실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윤택씨(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 전통 불교문화에 바탕을 둔 국민축제가 월드컵 식전 문화행사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2002년 월드컵 식전 문화행사'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월드컵 행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국민적 축제였던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식을 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등회 이벤트는 수만 관중이 일제히 등을 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며 "가면을 이용한 팔관회 또한 가면의 이미지를 통해 동양의 신비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장섭 수석연구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월드컵은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월드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월드컵을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서석재의원 국민회의 입당

정각회장 선거 '변수'로

최근 서석재의원이 국민신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바꿈에 따라 국회정각회 회장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10일 서석재회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회장 선출은 미궁에 빠진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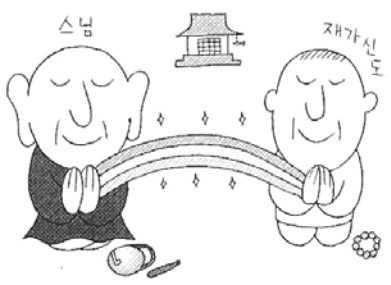
국민회의 정각회장 후보인 박상규의원은 서석재의원과 정각회장 선출문제를 협의한 자리에서 "서의원이 국민회의에 영입되면 자연스럽게 회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수차례 피력한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장인성 국장은 "서석재의원이 여권의 새 정각회장 후보로 나선다면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서의원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청정승가를 위해 함께…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툰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訃告

韓國佛教 太古宗 第15世 宗正 寶城堂 鄭斗石 大宗師께서 佛紀 2542年 9月3日 午後 3時 40分 三角山 奉元寺 雲水閣에서 涅槃하시었기에 茲以 告訃합니다.

佛紀 2542年 9月 3日

一. 永訣日時 : 佛紀 2542年 9月 7日(月) 午前 10時 (宗團葬)
一. 永訣式場 : 서울 西大門區 奉元洞 新村 奉元寺
一. 茶毘場 : 原州 寶林寺 連華臺 午後 2時

■ 법상좌 : 법천·법장·법암·법하·법해·법경·법우·법은·법공·법산·법인·법운·법혜·법명·법안·법오·법주·법정·법철·법원·법연·법선·법경·법소

■ 嗣子 : 鄭河龍·鄭慶龍·鄭漢龍

韓國佛教太古宗 第15世 宗正 寶城堂 鄭斗石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洪 印 谷

⊙ 連絡處 : 總務院 (02) 745-2030
奉元寺 (02) 392-3008
寶林寺 (0371) 762-1595